국내
마감시황

2026.4.7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중동 지역 긴장 고조되며 혼조세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최후통첩 시한 앞두고 경계감 확산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 57.2조원으로 역대 최대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494.78pt (+0.82%)	1,036.73pt (-1.02%)	821.10pt (+1.14%)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504.10 원 (-5.7 원)	3.7600% (+3.5bp)	6,622.75pt (-0.42%)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3,427 억	-319 억	-1,775 억
외국인	+4,090 억	+1,822 억	+121 억
기관	-4,141 억	-1,251 억	+1,723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중동 사태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각 기준 내일 오전 9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4시간 만에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최고 군사령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한편, 장 전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57.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KOSPI는 0.82% 올랐고, KOSDAQ은 1.02%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3.1조원, KOSDAQ은 약 10.0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에서 4천억원대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운송장비/부품과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건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에서 약 4천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건설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제조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호실적에 반도체 업종 전반이 상승했습니다. ESS 수요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며 2차전지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원전 및 플랜트 수주 확대 전망에 건설주가 올랐습니다. 그 외, 방산주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최근 주가 상승폭이 컸던 재생에너지 업종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 그 외 조선, 금융, 엔터주가 내렸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6.00%), SK하이닉스(+3.39%), 삼성전자(+1.76%)가 올랐고, OCI홀딩스(-7.71%), 하이브(-5.54%), 미래에셋증권(-2.69%)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